

P

anelist

Migration of Korean-Chinese and the Diversity of the Korean World

KOH, Sun-Hui

Lecturer, Bunkyo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among Korean-Chines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exiles. Whereas all of them share the same ethnic roots, each group experienced quite different kinds of nationalism especiall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during the Cold War.

About 97% of Korean-Chinese, whose total population reaches as much as 2 million, are concentrated in three states of northeastern China which formed Manchuria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Until 1992 when China and South Korea entered into diplomatic relations, Korean-Chinese enjoyed the reputation of their solidarity, higher education level, agricultural technology and diligence, suppor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ir kinship and network with its people. However, the Korean-Chinese community was destroyed by rapid social change caused by the South Korean massive scale of investments in China, motivating

their migration to other cities of China in special-status zones and South Korea. The Korean-Chinese mobility was so much stimulated that some chose to migrate to Russia to work and others went to Japan to study and/or work. After 1990 everywhere South Koreans migrated to, Korean-Chinese followed to work together. And after 2000, North Korean exiles migrated to everywhere Korean-Chinese enterprises existed.

The Korean-Chinese migrants to South Korea brought dispute as to whether they should be considered "compatriots" in spite of their Chinese nationality and their "illegal status" as immigrants.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clude the overseas Koreans with a special status settling the Foundation for them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However, they share nothing more than common language and ethnic roots. They should accept the diversity of Koreans in order to create bonds between Koreans around the world.

중국조선족의 세계적인 이주와 한국인/탈북자와의 관계 고 선 회

시작하며

민족주의를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한국인과 조선족, 탈북자가 세계적으로 이주하며 살아가는 다이나믹한 실태를 무시하고 단지 같은 민족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 한국인이, 조선족과, 탈북자가 생각하는 민족은 그들이 살아온 역사처럼 서로 다를지도 모른다. 그것은 한국에서 한국인이 마조리티(Majority)이며, 중국에서는 조선족, 북한에서는 탈북자가 마조리티인 것 처럼 다르다. 설사 조선족이나 탈북자 한국인들이 선조를 동일시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자. 그러나 삼자는 20세기에 들어서 지리적/사상적/역사적으로 분단되어 반세기 이상을 적대하면서 살아왔다.

마치, 자신이 본적도 없는 부모나 조상의 출신지/ 나라에 가는 것을 귀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처럼 ‘귀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본과 국제기관, 북한의 공동작전에 의해 복송된 재일동포들에게, 북한은 결코 ‘귀국’이나 ‘귀향’이 아니었다¹⁾.

탈북자나 조선족은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라서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민족이라는 점에만 주목할 때 배제되는 다양성이야말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때 중요한 점이 되리라. 다른사람들을 배제하는 강제력을 가진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것은 반역일까, 매국일까? 민족은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민족적으로 살기위해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이다. 민족을 규정하여 억압하려는 강제력에 대해 어떻게 저항을 해야 할까? 같은 민족은 받아들이고 다른민족은 배척해도 되는 걸까?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남, 구체적인 관계형성을 생각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그게 어떤 결론에 이를지라도 모색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조선족, 탈북자, 한국인은 같은 민족이지만 공통점은 언어와 ‘같은민족이라는 환상’ 밖에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다르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낯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관계를 시작해보자.

본론에서는 조선족과 한국인, 탈북자의 관계를 봄으로서 같은 ‘민족’이지만 민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형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1 조선족을 둘러싼 중국의 변화

중국조선족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전체의 97% 이상이 동북삼성(흑룡강성, 길림성, 료닝성)에 거주하고 있다²⁾. 현재 조선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대량이주는 19세기 후반부터이다”³⁾. 거기에서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를 점령/지배하는 과정에 한반도 주민이 과거에 예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중국에 유입했다. 즉 일본의 조선에서 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으로 시작된 식민지정책은 농민들의 토지상실과 빈곤화를 초래했고 그들을 ‘만주’로 이주를 부추겼다. 조선족 인구를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관련해 1910년에 약 10만명, 1931년 약 64만명, 1944년 165만명이다”⁴⁾. 그 후, 1945년 일본군이 중국본토에서 철퇴를 시작한 후 약 50만명의 조선인이 한반도로 돌아갔고 100만명정도가 중국에 남아서 현재 조선족의 모체를

형성하고있다. 즉 조선족 대부분은 일본식민지배하에 생활난을 피해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5). 조선족 형성에는 동북아시아의 근대사, 특히 한반도와 중국동북지방을 둘러싼 열강들이 각축했던 흔적이 남아있는걸 기억해두자.

1-1 조선족의 민족교육과 공동체

조선족은 교육을 통해 민족자립을 지향했다. 현재 중국이 성립하기 전, 전쟁과 빈곤한 가운데서 1947년 북한에 유학생을 보냈고, 1948년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을 설립했다. 조선족들이 교육은 대학이나 고급중학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도 전국평균 두 배 이상이다6). 조선족이 높은 교육수준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이여도 자부심을 보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조선족의 교육은 북한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1950년대) 당시 북한은 중국조선족사회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했으며 조선족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기초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았다. 예를 들어 연변대학 조선언어 문학학부에서 건교초기에 김일성종합대학 교과서를 사용했고, 그 밖의 조선족 초/중학교에서도 북한에서 출판된 지리, 역사교과서를 사용했으며, 문학교과서도 북한교육성에서 비준한 교과서였다(-중략-)북한에서 교과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중국조선족의 민족교육은 힘들었을것이다”7). 즉 북한과 중국조선족은 국경을 끼고 서로 다른나라에 속해있어도 교육이나 생활면에서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있었다. 특히 민족성유지에 핵심적인 교육, 교과서를 북한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유지한 점은 조선족과 북한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 다음은 조선족이 민족성을 유지에 중요한 조선족공동체를 보자. “중국조선족은 1990년까지 아주 안정되며 폐쇄적인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있었다 (-중략-)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집중적으로 거주, 주로 농촌에서 조선족만으로 형성된 마을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8). 조선족은 논이 없었던 중국동북지방에 논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기술을 도입해 열심히 일하며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등 중국에서 문화적 우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조선족이 중국 소수민족중에서 높은지위는 이민한 사람들이 격동하는 정세속에서도 피를 흘리며 노력한 결과 인것으로, 그 것이야말로 조선족의 정신적 기반이며,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을 할 때까지였다. 그 후 평화롭고 자랑스럽던 농촌 조선족공동체는 충격적일 만큼 급격히 붕괴해갔다. 그토록 아름다운 세계를 형성하고있던 조선족공동체를 붕괴시킨 범인이야말로 한국(인)이라고, 중국조선족사회에서는 한국이야말로 ‘공공의 적’이된다.

1-2 조선족의 세계적인 이주

1992년 이 후 조선족공동체를 붕괴시킨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며, 한국은 조선족공동체를 붕괴할 의도가 없었다. 실제로는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자본)이 연변과 중국에 몰려가는 동시에 조선족이 연해지방과, 한국으로 이주했다. 즉, 조선족의 이주가 공동체를 해체/붕괴한 것이다. 간접적으로 한국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뒤흔들었고, 조선족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며 농촌에 있던 조선족공동체를 ‘쓰나미’ 처럼 휩쓸었다. 그러나 쓰나미는 단독으로 일어나지않는다. 지진이 없으면 쓰나미는 일어나지않는다. 비

록 진원지가 멀어서 지진을 못느끼더라도 쓰나미는 지진과 셋트인 것이다. 그러면 조선족공동체를 붕괴시킨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의 진원지를 보기로 하자. 진원지는 조선족공동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세계적인 규모의 지각변동으로, 1990년 동서냉전구조 붕괴와 그 후 세계화의 가속화를 들수있다. 세계화는 지구전체로 보면 또 다른 ‘지진’으로 볼 수있다. 그로인해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 ‘쓰나미’는 연안만이 아닌 내륙에도 밀어닥쳐 많은 피해를 주고있다. 무엇보다 확실한 영향을 준 큰 ‘지진’은, 1980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1992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했다. 그동안 조선족은 사회주의정책하에 모범생이었으나, 시장경제로입으로 급격한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했다. 중국경제발전 중심인 연안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구조전환에 뒤떨어진 동북삼성에 있던 조선족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뒤쳐진것이다. 연변지역은 투자대상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올 기반이 정비되어있지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진 투자라도 유치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1992년 이 후 조선족의 세계적인 이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있다.

“1)(중)국내 각도시로 김치행상.

2)동북삼성 각도시와 북경시내에서 조선요리점 경영.

3)(중)국내 각도시와 해외 한국기업에서 고용노동(‘노무’).

4)친족방문등으로 한국내에서 불법취로를 들수있다”9).

그 밖에도 러시아로 출가가 있고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이주도 많다. 그리고 1990년 이후 한국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조선족이 갔다. 그 관계는 상호간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 결과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족이 이주를 탈북자가 따라가고있다. 즉 한국인이 이주한 곳에서 조선족이 고용되어 일하고, 조선족이 행상을 나간곳에서 탈북자가 고용되어 일하고있다. 이런 관계는 자본의 크기에 의해 형성된다.

조선족의 한국 이주에 또 다른 특징은 조선족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 이주하는 경우이다. 조선족이 합법적인 입국이 어려웠던 시절, 한국에 오기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택했다. 거기에는 미혼여성 만이 아니라 기혼여성마저도 조선족남편과 ‘위장’ 이혼을 해서, 한국남성과 ‘위장’ 결혼을 했다. 그제 진짜이혼과 진짜결혼이 되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많았다10). 그로 인해 조선족공동체 재생산이 어려워졌다. 거기에다 연해지방에 있는 한국인타운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여성의 이주로 농촌 조선족공동체에 젊은여성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조선족여성이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운 남성과 결혼, 조선족남성은 ‘탈북자’ 여성과 결혼하는 이주형태도 있음을 밝혀둔다. 농촌 조선족남성의 결혼난은 정말로 심각하다. 조선족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은 조선족남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조선족은 조선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조선족남성 중에는 연해지방이나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해 농촌에 남는 경우가 있다. 또 부부가 도시로 이주해서 여성은 일을 구하기쉬우나 남성은 일을 못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으로 조선족여성 부담이 커져서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 조선족여성의 한국과 연해지방으로 이주에 따라 남성들도 이주함으로 조선족공동체가 급격히 과소화했다.

한편, 조선족여성이 쉽게 위장이혼과 위장결혼을 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족공동체에서 보면 ”이혼에 관해 조사한 결과, 기혼자150명중, 이혼이나 재혼을 경험한자는 한족여성 1명뿐이었다. 남편의 음주나 도박등으로 부부싸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 이 마을 조선족사이에서 이혼이나 재혼이 전혀없는 것은 조선족농민이 아직도 이혼을 인생최대의 실패나 수치”로 알기 때문이다¹¹⁾. 결국, 조선족여성은 생활을 위해서 수치심을 무릎쓰고 위장이혼과 위장결혼을 해야했다. 자신이 한국에 입국해서 가족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2 한국이주와 한국인과의 관계

조선족의 한국이주에 관해 보자. 국내의 이주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 2009년 3월31일 현재, 394,021명이 한국에 거주하며 대부분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걸로 알려져있다¹²⁾. 조선족 전체인구의 20%정도가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것이다.

그 현상에 관해 한국인 연구자는 “조선족 노동자는, 개인의 경험적차원과 한국과 중국에 제도적차원, 그리고 문화적차원들 가운데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한국으로 이주를 선택(-중략-) 결정요인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중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등이다. 재한 조선족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개인 혹은 가족 차원에서 경제적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계층 상승 방법의 한 ‘대안’으로 중국 내 다른지역보다는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이주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썩 ‘잘사는 고국’을 선택하였다”고 한다¹³⁾. 거기에서 “조선족은 근무시간 외에는 한국인 고용주나 동료등과 접촉을 하지않고 같은 민족간이지만 한국인과 접촉은 적다. 조선족끼리 모여서 집거지를 형성해 한국내에서 독특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있다¹⁴⁾. 이런 현상은 조선족 만이 아니라 제주도사람과 재일제주도사람 사이에도 볼 수있었다. 거기에는 비록 같은 지역출신자라해도 처해있는 입장이나 세대별로 교체범위가 정해져있었다¹⁵⁾.

조선족은 외국인 노동자중 최대집단이며 ‘불법체재자’였으나 최근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조선족의 불법체재가 완화 현재 약 7% 정도이다.

조선족이 한국이주 이유는 중국과 임금격차, 언어가 통하는 큰 도시, 노동시장과 조선족 최대집거지라는 생활상 편리성을 들수있다. 그리고 조선족은 한국인과 만남을 통해, 차별을 당함으로 한국인과 동포라는 점보다 자신들이 ‘중국인’ 이였다고 인식한다. 또 한편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연변에 돌아가면 자신들이 한국생활에 익숙해 ‘한국화’ 한 것을 느끼며, 익숙했던 고향생활에 이질감을 느낀다.

2-1 조선족과 탈북자의 관계

탈북자가 북한에서 나올 때, 그 목적지는 조선족이 있는 곳이다. 탈북자에게는 여러모로 조선족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조선족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하는것도 어렵고, 구원활동을 하는 한국인과 연결도 어렵다. 그리고 조선족과 탈북자는 지금까지 형성한 관계로 인해 상호연계가 되어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활이 어려웠을 때 북한에 행상을 갔던 사람에게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해서 먹고살수있게 되는데 비해 북한이 곤궁해진 것을 마치 자신들 일처럼 마음 아파한다. 장백은 북한과의 무역이 주된 산업이다. 중국쪽은 자동차가 질주하고 건너편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도보로 움직이며 소달구지가 운반을 한다. 밤이면 네온이 번쩍거리는 중국에 비해 북한은 암흑처럼 어

둔다. “그 전에는 북한이 발전했었고, 중국이 굶어서 지금과 반대였다”고 한다¹⁶⁾. 조선족이 북한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질은 한국인과는 아주 다르다. 예를 들면, 탈북자 구원활동을 하고있는 어느 한국인이 탈북자에 관한 대응은 사명감을 띤 것이다. 그는 그 전에 병든 탈북자가 연락을 하던 중 죽은것을 자신의 부주의로 죽인것 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 다시 자신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탈북자를 죽이고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있다¹⁷⁾. 그러나 감정적으로 탈북자와의 공감이 폭은 넓지않다. 조선족 처럼 북한상황을 공감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탈북자는 조선족에게 의지하지않으면 중국생활이나 러시아 그 밖에서도 살아가지기 힘들다. 그 관계는 탈북자가 일방적으로 조선족을 의지하는 게 아닌 탈북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교환조건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탈북자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조선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조선족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나 탈북자는 자신들이 돌봐야하는 존재라고 표현한다. 그런 관계가 역전하는 것은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이 된 뒤이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이라든지 조선족과 접촉이 있지만 중국에서 와는 아주 다르다. 탈북자가 보면 조선족이 ‘중국인’인지 ‘조선민족’인지 분명하지않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조선족에게 차별을 당했으며, 한국인이 도와주었다는 케이스도 있다¹⁸⁾.

2-2 탈북자와 한국인, 조선족의 관계

조선족과 탈북자/한국인의 관계는 같은 민족이지만 살아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잠재적인 우월감과 민족주의적 감정이 서로간에 차별로 드러난다. 조선족에 의한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하나의 통과의례이다. 연변에서 보면 조선족에 의한 한국인차별도 대단하다. 1990년 이후 한국 비판을 통해 조선족 정체성이 확립해가는 것 처럼 보일 정도이다. 조선족이 한국인에 대한 시선은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감각이다. 한국인을 비판할 때 비교대상은 항상 ‘중국인’이며, ‘일본인’인 것이다. 요점은 한국인은 왜 ‘중국인’ 처럼, ‘일본인’ 처럼 못 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정도 밖에 못 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사회 저변에서 힘든노동을 하며 한국인에게 차별을 당하는 현실에 자존심이 상한다. 그것은 조선족이 아무리 교육수준과 문화정도가 높다고 자부하지만 중국에서 세력범위가 한정된 소수민족이라는 답답한 처지와 비슷하다. 거기에다 앞보던 한국인의 힘을 빌려야한다는 것은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한편, 한국기업이 중국진출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족이 협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부한다. 조선족이 없었더라면 한국기업이 중국진출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조선족에게 도움을 받았으리라. 그것은 자본이 이동에 따른 경제적인 관계로 같은 민족이던 아니던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조선족도 한국기업 진출에 의해 일자리를 얻었다면 호혜적인 것이다.

한국에서 보면 조선족은 중국에서 온 이민 노동자인 것이다. 조선족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써비스업은 한국에서 낮은 직업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 국가 한국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고, 남녀차별, 계급차별이 있다. 거기에다 혈연, 지연, 학연등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폐쇄적인 사회이다. 경제발전도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발전해 여

러가지 의미로 격차가 심한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을 같은 민족이면서 차별당하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시민운동이나 교회에서 돕는 활동이 활발하다. 그것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이 힘써 노력해도 조선족들의 자존심을 충족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탈북자 쪽에서 조선족을 보면, 공통적인 면도 많지만, ‘중국인’ 처럼 보이는 거리감이 있다. 거기에는 사상적인 면에서 북한이 훨씬 우월하다는 우월감을 엿볼수 있다. 한편 한국인에 대해서는 말이 통하는 것일 뿐 마치 외국인처럼 거리감을 느낀다. 그래서 같을거라는 기대감 없이 한국인과 접해서 편하다고 한다. 자신들과 한국인과의 큰 거리감을 인정한다. 그러나 잘사는 나라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도 많고, 자신들 처럼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다. 거기에다 탈북자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사회적응이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한국사회에 있다기보다 적응을 못하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국적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에서 벗어나 한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한국인과 탈북자의 관계를 보면, 조선족만큼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가 없다. 탈북자가 늘었다지만, 조선족에 비해 20분에 1정도로, 많은 한국사람들이 매일 접할 정도 숫자가 아니다. 즉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사람들도 탈북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한국인이 탈북자나 북한에 대해 너무 몰라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들이 반응에 차별감보다, 허탈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어느 탈북자가 대학생들에게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밥을 못먹는다는 설명에 한국대학생이 “라면이 있고, 빵이 있다”는 반응에 굶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한국 젊은이에게 허탈감을 느꼈다고 한다¹⁹). 탈북자쪽에서는 한국사람에게 이해를 기대하지 않을 만큼 거리가 있다.

3 결론

조선족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한국인에게 민족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한국도 실패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 신화를 가진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조선족이 외국인 노동자로, 그것도 불법체류이면서도 한국인을 비판하며 자신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국(인)은 어떤 대응을 할 지가 큰 문제였다. 그 배경으로 1990년 이후 급격히 진행한 한국의 국제화가 있다. 한국의 국제화는 국가주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주가 가져온 실패가 먼저 진행했다.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나갈때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거기에다 동서냉전구조가 붕괴함에 따라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주의 불력에 있던 같은 민족을 ‘발견’했다. 한국정부는 해외에 있는 조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람들(민족)을 한국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했다.

조선족이 한국왕래는 1980년대 후반이었으며 한국(인)이 재외동포/ 같은 민족이라는 낯선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배척하는지가 주시된 대상이었다²⁰). 거기서 문제가 된것은 한국인이나 조선족 쪽에서도 ‘민족’이었다. 어쩌면 ‘민족’이나 언어외에 공통점이 적은 사람들이었다. 한국인이 조선족을 같은 민족으로 볼 때, 조선족이 가진 이질감을 배척하고, 차별한다. 조선족이 한국인을 같은 민족으로 볼 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존중하는 시선은 있는 것일까? 거기서 조선족이나 한국인이 같

은 민족으로서 관계 형성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가 알아감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여지가 없을까? 조선족 만이 아닌 조상을 공통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해져가는 한국사람들이 국가나 민족에 구애받지않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것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注

- 1) 텃사. 모리스. 스키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ー「帰国事業」の影をたどる』 朝日新聞社 2007年、梁英姬 『ディア・ピョンヤン—家族は離れたらア칸のや』 아트론 2006年참조
 - 2) 韓景旭a 「中国朝鮮族社会におけるキリスト教の受容と展開—韓国による影響を中心として」 吉原和男외編 『アジア移民のエスニシティと宗教』 風響社 2001년 137페이지, 이 숫자는 통계상이며, 조선족의 이주실태가 반영되어있지않음.
 - 3) 韓景旭a 137페이지
 - 4) 韓景旭a 138페이지
 - 5) 韓景旭a 138페이지
 - 6) 최우길 『중국조선족 연구 (中国朝鮮族研究)』 신문대학교 출판부 2005년 28페이지
 - 7) 허명철 『전환기의 연변조선족 (轉換期の延辺朝鮮族)』 료녕민족출판사2003년 86페이지
 - 8) 권태환외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3년 3페이지
 - 9) 韓景旭b 『韓国・朝鮮系中国人=朝鮮族』 中国書店 2001年 227-8페이지
 - 10) 시정신문/중국길림신문 편 『넘어야 할 산 그것은 삶의 희망』 도서출판해맞이 2005년 참조
 - 11) 韓景旭b 『韓国・朝鮮系中国人=朝鮮族』 中国書店 2001年 133페이지
- 이 점에 관해서는 시기가 내려오면서 조선족공동체에서도 이혼이 늘어난걸로 추측됨.
- 12) 이진영외 「제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2009년 100페이지
 - 13) 이진영외 99페이지
 - 14) 이진영외 참조
 - 15) 高 鮮 徽 『在日济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関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1996年5月
 - 16) 2006年中国長白에서 인터뷰.
 - 17) 2004年、2006年中国瀋陽에서 인터뷰.
 - 18) 2006年ソウル에서 인터뷰.
 - 19) 2006年ソウル에서 인터뷰
 - 20) 그동안 재일동포에 의해 한국인들이 자신들에 관해 이해가 없으며 차별을 한다고 자주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조선족처럼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